



# 올 여름 오대산서 붓 끝 연화장 세계가

### 평창 월정사, 그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여름을 맞아 그림으로 불교문화와 한국전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성보박물관 앞 체험마당에서 '옛 선인들의 삶과 색으로 만나다'를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2 복권기금 문화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평창지역의 초등학생과 청소년, 평창관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노인 요양원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옛 선인들의 소박한 면면을 엿볼 수 있는 '민화 그리기' 체험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 지도 하에 초뜨기부터 금선 배우기까지 민화를 그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와 함께 월정사 문수청소년회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생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 어린이 문화의움터'를 진행한다.

'붓으로 옛 선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문화와 놀이를 하나로 묶어 어린이들의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민화교육 △환경을 생각하며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 △전나무 숲길 걷기와 명상 △타본체험 및 도자기풍경 만들기 체험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아울러 9월 28일까지는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되는 제9회 오대산 전국 학생 백일장을 공모한다.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주제는 각각 시부문 그림자·꽃피·종(鐘), 산문부문 아이스크림·반신문·벽이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장학금 50만원이 수여되며 장원에 강원도지사상, 강원도교육감상, 월정사주지사가 주어진다. 차상에는 평창군수상, 평창군교육장상 등이 수여된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오대산은 한국불교의 성지이자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인류의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시던 곳"이라며 "평화와 생명, 나눔과 사랑의 신심으로 가득 찬 오대산에서 전국의 문학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꿈과 재량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7월 21일 대법륜전에서 포교사단 강원지단(지단장 최상규) '포교사 포살(布薩) 및 제17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연수, 면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강원지역 200여명 포교사들은 상원사 주지 인광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10중 48계를 점검, 청정 계율로 수행 정진해 나갈 것을 서원했다. (033) 339-68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도심 속 천진불들의 웃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마련한 도심 속 여름 불교학교가 어린이와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21~22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육불보전 대법당에서 열린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는 250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학생들은 작은 운동회와 영어로 하는 불교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교리와 협동정신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육바라밀의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한 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불교대학은 앞서 7월 14일 50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회를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중등부 수련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대구 보성선원서 혜민 스님 '마음치유 법회'

베스트 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혜민 스님이 7월 24일 대구 달서구 보성선원(주지 한복)에서 마음치유콘서트를 봉행했다.

혜민 스님은 이날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는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빛깔과 향기를 찾아 고마워하고 사랑하며, 상대방을 용서 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혜민 스님의 법회에는 지역 불자와 시민 약 20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마음치유콘서트에서는 남원 선원사에서 '사랑 실은 스님의 짜장' 무료대중공양도 함께 마련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산 연등축제 대상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부산 연등축제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광역시불교위원회(위원장 수불)는 7월 17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12년 연등축제 회향 보고회를 열고 종합평가 대상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삼광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창작등 경연대회 대상은 관음사, 금상은 흥법사, 은상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각각 수상했다. 동상은 진각종 부산교구와 삼광사, 여래사불교대학

이 수상했다.

불교위원장 수불 스님은 "연등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첫 연등축제였던 올해의 행사에 동참해 준 시민불자 여러분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두가 이번 연등축제 대상의 주인공으로 내년에는 더욱 알찬 법석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 자명 스님 초청법회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는 부산 마하보리회(회장 손정현) 주최로 7월 20일 자명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법의 성격과 깨달음' 주제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마하보리회 회원과 불자 100여명이 동참했다.

자명 스님은 '법이란 무엇인가'와 참선의 중요성에 대해 설하고, 즉문즉설 방식으로 대중의 고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0여 년 동안 흥포해 온 고성염불 수행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5분여 간 고성염불을 직접 염송해보이기도 했다.

한편 오후 7시 반부터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법회는 다음 날 오전 2차 법회로 이어져 스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귀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찾은 사찰 주변에 술과 고기를 파는 주점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충남 가사찰)

### 절 주변을 청정하게

사하촌(寺下村)은 절 아랫 동네를 일컫는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절 가까운 곳에 사하촌이 형성되어 사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도 하고, 스님들의 수행이나 생활 그리고 신도들의 신앙활동에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사하촌 기능은 변질되어 사찰과 무관한 술집이나 음식점, 혹은 놀이시설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사찰의 청정환경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찰에 가계 되면 길 양쪽으로 뻗어 들어선 유흥음식점을 당연한 듯 생각하게 되었으며,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모습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나마 '문화재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 그리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찰주변에 대한 정화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어느 정도 옛 모습을 찾기는 하였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유흥시설에 대한 완전한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찰에 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다. 열심기도 하려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공부를 하려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으며, 다

양한 유형의 재를 지내려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악하고 잡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바르고 선한 것만을 대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그런데 막상 절에 가면 도량에 들어가기 전에 온갖 어지러운 환경을 접해야 하니 처음부터 기분 상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찰의 영역이라는 것은 단지 일주문 안쪽의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찰에 영향을 주는 주변공간까지도 모두 사찰 영역이다.

예전에 존재했던 사하촌은 사찰내부영역은 아니었지만 사찰과 연관된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한 곳이기 때문에 청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삼보를 모신 곳이 사찰이며, 삼보에 귀의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사찰이다. 이러한 사찰은 안팎으로 청정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오랜 세월동안 법당이 유지되어온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어지러운 세상에 그나마 사찰이라도 청정해야지 어디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 긴 속세의 때를 벗길 수 있겠는가!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